

정(情) 마음 모형 검증

김 기 범*
동국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정(情)을 문화심리학(folk psychology) 관점에서 마음의 범주 모형을 통해 검증해 보았다. 정 마음은 신념, 욕구와 기능의 범주로 구성하여 행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정의 감정이 정 마음의 범주 중 신념과 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검증한 결과 신념-욕구-기능과 감정이 마음의 범주로 형성되고 있고 감정은 또한 표현행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 마음은 인지, 감정과 욕구로 구성된 복합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문화적이고 토착적인 심리현상을 이론적 구성개념으로 형식화시킴으로써 타문화권 현상과 비교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정, 마음, 문화심리학, 신념, 욕구

인간의 마음은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고 삶의 현장에서의 활동을 통해 그 의미가 구성된다. 이러한 의미의 구성이 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짐을 전제하고, 심리와 문화의 연결 고리를 문화심리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화심리학은 일반인이 역사문화적 맥락 속에서 삶의 과정을 통해 사람의 마음은 물론, 사람의 마음과 연계된 사물, 사건, 행위 및 개념에 대해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해석과 설명체계를 뜻한다(최상진, 1999, p.12; Bartsch & Wellman, 1995; Bruner, 1990, pp. 33-35; D'Andrade, 1987; Goldman, 1993; Greenwood, 1991; Haselager, 1997; Kashima, McKintyre, & Clifford, 1998; Wertsch, Rio, & Alvarez, 1995; Vygotsky, 1978).

또한 문화심리학적 접근은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고, 그러한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며, 설명하는지에 초

점을 맞춘다. 이러한 심리적 경험과 이해 및 설명이 공유되었을 때 이를 문화적 경험이라 할 수 있다(최상진, 1999; Bruner, 1990, pp.39-40). 다시 말해, 문화심리학적 설명은 행위의 사회적 의미, 즉 문화적 의미(local meaning)를 밝혀내고, 규칙이나 이유의 차원에서 이러한 행위를 명료화시키고자 한다(Greenwood, 1991; 1999; also Cole, 1996).

한국문화에서의 대표적인 문화적 경험으로 정(情)을 들 수 있는데, 정은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 예를 들면 가족이나 친구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 혹은 상대방으로부터 다정함과 허물없음을 느낄 때 드는 것이다. 정은 항상 잘 대해주고 아껴준다고 해서 드는 것이 아니라 간혹 싸우거나, 서로에게 실망하거나 밋게 보일 때에도 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정이며 이러한 정

* 교신저자 : 김기범, (100-715) 서울 중구 필동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시간강사로 재직 중
E-mail : 66purple@par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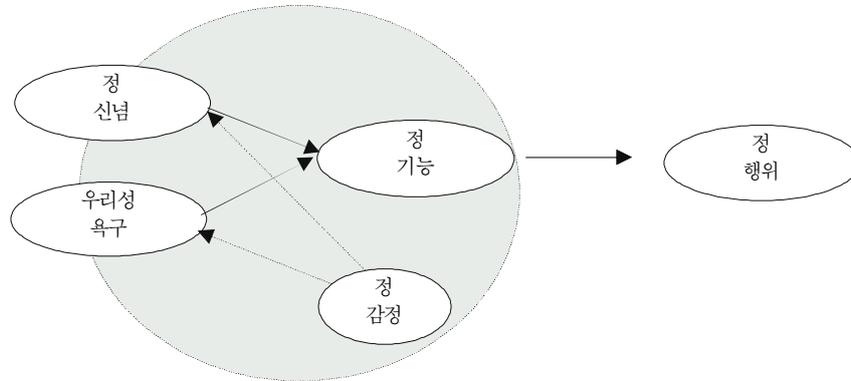


그림 1. 정(情) 마음의 모형

을 ‘미운 정 고운 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아끼고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한 요소이고 이러한 마음은 친밀한 관계속에서 주고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최상진, 2000 참조).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이해, 예측과 설명은 관찰된 행동이 마음의 범주(category) 내의 사건에 근거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정(情)의 마음이 정에 대한 문화적 신념과 욕구 및 기능 함축적인 의도성이 마음의 범주로 구성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자 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 마음의 구성요소 중 문화적으로 공유된 신념 체계는 사람들이 실제로 행하는 활동에 의해 의미가 부여되고 내재화됨을 전제하고(최상진, 한규석, 1998, 2000; Bartsch & Wellman, 1995; Moscovici, 1984), 친밀한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욕구의 형태로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마음(범주)의 모형 연구(Kashima et al.,

1998; Lillard, 1998)에서 한 가지 지적되고 있는 것은 감정에 대해, 정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 또한 신념이나 욕구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해 보고자 한다. 이는 문화심리학이나 마음의 이론¹⁾에서, 행위에서 추론되는 마음속에 혹은 마음의 범주 속에 감정의 역할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는 연구들을 감안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 마음의 구성 요소로서 신념, 욕구 및 기능과 감정이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검증해 보고자 했다.

따라서 신념과 욕구 및 감정으로 구성된 정(情)의 마음은 기능 함축적인 의도를 포함하는 범주로 확장되어 정을 표현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됨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정이라는 문화적 현상을 마음의 범주 이론에 근거하여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가능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정(情) 마음의 모형을 구성하게 된 배경과 각 개념들의 이론적 근거 및 각 구성개념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情)마음의 범주

마음의 범주로서의 신념은 지식, 의견, 상상, 확신이나 예감을 포함한 사고의 일반적인 범주라 할 수 있는데, 모든 정신적 상태는 세상에 대한 무엇인가 진실된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욕구는 원하는 것(wants), 추진하는 것(urge)과 무엇인가에 대한 신경쓰고 있는 상태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범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어떤 것에

1) Bartsch와 Wellman(1995)은 성인들의 마음의 이론(theory of mind)을 아동에게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마음의 이론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해의 기본적인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즉, 우리는 기본적으로 외현적인 행동과 모습 뒤에 있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상태를 신념, 욕구, 정서, 의도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마음의 이론은 우리 일반인들의 사람들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고, 일상의 심리학(everyday psychology)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위, 사고 및 삶을 어떻게 이해하는 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p.4). 마음의 이론이라는 말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해가 정신적(mentalistic)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다(Lillard, 1998).

대한 혹은 어떤 것을 향한 사전적 태도의 전체 범위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마음의 일반 상식적인 개념에 근거하는 구조는 욕구와 신념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인가를 원하고 몇몇의 행동이 그것을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한다(Bartch & Wellman, 1995, p.5).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이해는 마음이 세상을 나타내고 있고, 마음이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즉 신념은 상징적이고, 무엇인가를 의미하고 있으며, 나타내고 있는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표상(social representations)은 사람들이 세상사들을 이해하는 인식틀로서 그 사회 내에 공유되어 있어, 성원들간의 소통을 촉진시키며, 집단의 경계를 구분해주는 인지적 지식체계이다(Moscovici, 1984). 실생활에서 실물성 경험으로 체험되는 문화현상에 대해서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표상이 일관성 있으며, 공유성이 있고, 문화심리 논리적으로 ‘그러하며 마땅한’(소이연 - 소당연) 의미체계와 설명체계 등이 조직화된 형태를 보인다(최상진, 한규석, 2000). 어떤 심리현상에 대한 사회적 표상이 바로 이러한 속성에 얼마나 가깝게 근접하고 있는냐에 따라 그 심리현상의 문화적 현저성, 보편성, 실물성, 체험성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신념으로서의 사회적 표상은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은 일상의 경험을 통해 정(情)은 이런 것이고, 이럴 때 드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Bruner(1990)는 문화심리학의 구성요소이자 전제가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신념과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세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고, 우리는 어떠한 것을 원하며(want), 그러한 것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것을 믿는다(believe)”라고 보았다(p.39). 따라서, 사람들의 신념과 욕구가 행동과 삶의 방식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그러한 일관성은 사람을 특성지을 수 있는 기질이나 성격으로 보여질 수 있다.

가족관계를 원형으로 하는 정든 관계는 일반적 사회관계에서 이보다는 크게 약화된 또는 희석된 상태의 정을 형태를 띠고 있다. 한국인들은 서로 상대의 나에 대한 정을 확인할 때 우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가 되었을 때 한국인들은 서로 상대를 집안식구처

럼 편안하고 든든하게 느끼며, 깊은 우리성 관계에서는 사회적 격식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최상진, 2000).

따라서, 한국 사람들은 가족같은 친구나 가족처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일차적 집단)을 만나고 사귀으로써 정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욕구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attachment)과 사회적 동기 중의 하나인 제휴(affiliation)의 욕구가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인 욕구는 문화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집합주의 문화중의 하나인 한국의 경우 정(情)의 욕구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한국 문화의 특성 상 이러한 욕구는 관계맺음 욕구로 귀결되어 나타난다.

철학에서는 동기, 의미, 생각 및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마음을 지향성(intentionality)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Shapiro, 1997), Malle와 Knobe(1997)는 문화심리학적 접근으로 의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는데, 하나의 행위는 신념과 욕구 및 의도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각 및 기술 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일반인 심리학에서의 신념, 욕구, 의도, 기술 및 자각을 지향성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Shweder(1990, 1991)도 세상에 의도되지 않은 것은 없으며, 문화적 현상은 지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지향성의 개념은 기존의 사회심리학에서 태도와 행동을 매개하는 행위 의도(Fishbein & Ajzen, 1975, theory of reasoned action)의 개념을 도입하여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념으로 사용한 바 있다.

철학자인 Harbemas(1994)는 지식의 원천이 사회적 동물들의 상호작용에 있고, 모든 사회적 동물은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고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문화심리학에서 의도의 개념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동기, 의도, 욕구 및 신념을 포함한 지향성의 개념으로 포괄되고 있고, 이러한 지향성은 행위 결과에 따른 심리적 기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념과 욕구 그리고 행위를 매개하고 있는 의도성의 개념은 행위에 원인으로서의 역할과 행위의 결과에 따른 기능을 변증법적으로 함축하

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2000; 최상진, 이장주, 1999).

또한 마음은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서구 문화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합리적인 것으로 그리고 정서를 극복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Bartsch와 Wellman(1995)은 생리적 상태와 정서는 사람의 욕구, 신념에 근거하는 요소로 보고 있다(p.6). 따라서, 생리적 상태와 정서는 간접적으로 사람들의 욕구를 주도화하고 신념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 마음의 범주의 하나로서 정 감정은 최상진(2000)이 지적한 대로, 정서의 개인 내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의 의사소통적이고 상호적인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를 이장주(1998)와 최상진 등(2000)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정 감정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대인 관계 정서(interpersonal emotion)로 규정지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Choi & Kim, 2000, 2001). 이장주(1998)는 정서의 감정을 따뜻함과 그리움을 핵심 요소로 보았고, 최상진 등(2000)은 미움을 추가하여 '미운 정 고운 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정 마음의 범주를 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했다. 모형을 설정하는 방법은 이미 설정된 모형을 대입시켜 현재 그 응용이나 효용성을 가늠하는 것과, 현상과 개념을 중심으로 새로운 모형을 설정하거나 모형을 탐색하는 것이다. 마음의 이론은 이 두 가지 중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Wellman을 비롯한 서구 심리학자들은 유럽계 성인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음의 이론을 아이들에게 적용하여 모형의 적용가능성을 연구해왔다.

반면에 기존에 설정된 모형이나 이론적 개념들간의 관계를 현실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이나 응용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는데, Shore(1996, p.44) 등이 문화적 모형의 필요성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한덕웅(1994, 1999, 2000)이 유학의 심리학적 해석을 통해 유학의 이론적 위계모형 등을 분석하면서 현재에 그 적용가능성을 시도하고 있고, 성리학의 4단 7정에 대해 심리학적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김의철(2000)은 과학의 상호작용 모형을 통해 인간 기능의 의도적이고 의미적이며 생성적인 측면에 대해 설명이 가능

함을 지적하고 있다.

마음의 이론이 문화심리학과 접목을 통해 마음의 범주에 대한 모형을 설정할 수 있음을 Kashima 등(1998), Lillard(1998)와 Wellman(1990)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 문화에서도 마음에 대한 모형의 적용가능성을 최상진 등(2000, 2001)이 시도한 바 있다. 최상진 등은 문화심리학에서의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요소로서의 마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최상진 등의 모형은 마음의 이론과 문화심리학에서 마음의 범주로서 신념, 욕구 및 의도라는 구성개념을 요소로서의 마음으로 규정한 바 있다. 요소로서의 마음은 정의(情意)적 마음(감정, 동기, 의도성)과 더불어 인지적 마음(생각, 판단)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한국적인 마음관에는 정의적 마음과 인지적 마음을 구분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최상진 등은 한국인의 마음경험이 인지와 감정이 일체적 형태의 통합된 성격을 지닌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상진 등이 제안한 마음의 모형과 서구의 마음의 이론과 문화심리학에서 제안하는 모형 및 이론적 구성개념을 통합하여 새로운 모형을 제안하고자 했다. 이는 일반인들의 일상의 정경험을 통해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추론하는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정 상호작용에서 '정은 이런 것이다' 혹은 '정은 이럴 때 드는 것이다'라는 신념과 정은 궁극적으로 가까운 사람과 함께 있으려는 욕구가 기능합축적인 의도성으로 이어져 행위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모형을 제안하고자 했다.

마음의 범주로서의 각 이론적 구성 개념간의 관계와 영향력은 모형검증을 할 때 요구되는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해 가능하다. 구조방정식 모델링은 연구자의 이론적 관점에 따라 측정변인을 중심으로 잠재변인(이론적 구성 개념)간의 관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회귀모형을 여러 단계에 걸쳐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정 마음의 모형에서 각 이론적 구성개념간의 관계 및 마음과 행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정마음의 범주 모형의 각 구성개념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두 번째, 정 마음의 범주에서 감정의 역할은 무엇인가?

방 법

조사대상자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대학생들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수집하였다. 먼저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209명(남학생 102명, 여학생 107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학교를 졸업했거나 직장에 다니는 성인 110명(남자 53명, 여자 57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학생들의 평균 나이는 21세였으며, 성인은 42세였다. 성인들 중 남자들의 경우 직장인이 45명(85%)이었고, 여자들의 경우 직장인이 31명(54%), 가정주부가 23명(40%)이었다.

조사도구 및 절차

정 마음의 범주와 행위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한 분석을 하기 위해, 정 신념 척도, 욕구 척도, 정 기능 척도, 정 표현행위 척도 및 정 감정 척도를 개발하여 응답자들에게 지시문을 읽고 각 각의 문항에 대해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매우 그렇다)상에서 반응하도록 요구하였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강의실에서 집단적으로 실시하였고, 성인은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시간은 평균 20분이 소요되었다.

정 신념 척도

정에 대한 문화적 신념과 기능 및 행위 양식은 정에 관한 이장주(1998)의 연구 결과와 최상진 등(2000)의 정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정의 구성적 차원으로 역사성, 동거성, 다정성 및 허물없음을 들고 있는데, 이후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정의 구성개념으로 ‘아껴주는 마음’, ‘동거역사성’, ‘우리성 일체감’, ‘상대에 대한 이해(배려)’를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기초로 정의 드는 상황에 대한 문항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정은 이럴 때 드는 것이다’ 라는 사회적 표상을 근거로 ‘나는 정의 이렇게 들거나 이럴 때 든다는 것을 믿고 있다’ 혹은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의 형태를 반영하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모두 26개의 문항이 사용되었는데, 아껴주는 마음의 차원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좋아하는 감정 등이 들 때를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미운 정에 관한 문항들은 상대가 미운 행동을 할 때를

나타내는 것으로 미워도 정의 들 수 있다는 차원을 나타내는 것이다. 세 번째로 상대방의 본마음에 대한 이해와 동거역사성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84로 나타났다.

정 욕구 척도

정 욕구 척도는 최상진, 최인재와 김기범(1999)이 제작한 것을 본 연구자 등(Yu, Kim, & Lee, 2001)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욕구 척도는 15개의 문항으로 제작하였으며, 이전의 연구결과에 따라 정서적 욕구 차원과 도구적 욕구 차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먼저 정서적 욕구는 가까운 사람과 함께 있으므로 해서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었고, 도구적 욕구는 어떤 일을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이루어졌다. 욕구 척도의 신뢰도는 .87로 나타났다.

정 감정 척도

정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최상진 등(2000)의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제작하였다. 정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은 따뜻함과 애정을 중심으로 한 친밀감과 미운 정 때문에 생기는 미운 감정 및 정든 대상과 함께 함으로써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모두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본 척도의 신뢰도는 .75로 나타났는데, 문화적 정서인 정의 들었을 때 드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2차적이고 회고적인 감정들을 근간으로 구성하였다.

정 기능 척도

정의 심리적 기능은 정의 들으로써 느끼게 되는 만족감에 관한 것으로 이는 동기적 측면, 의도적 측면 및 기능적 측면을 포괄하는 것으로 지향성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정 들었을 때의 심리적 기능은 최상진 등(2000)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으로 구성하였는데, 먼저 긍정적인 기능은 심리적인 안정감과 허물없음에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하였고, 부정적인 기능은 정의 들으로써 해서 나타나는 이성적, 합리적 판단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함축하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모두 20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신뢰도는 .85로 나타났다.

정 표현행위척도

정 표현행위는 정 들었을 때 혹은 정 들기 위해 상대방에게 표현하게 되는 행위 양식에 관한 것으로 모두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81의 신뢰도를 보였다. 정 표현 행위 양식은 이장주(1998)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문항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예를 들면, 선물을 주거나 스킨십을 하거나 등) 행위와 상대를 이해하거나 배려하는 행위 및 비록 정 들었지만 실제로 밀게 행동하는 것에 관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분석

자료의 분석은 각 척도의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요인 분석과 각 요인의 성인과 대학생에 따른 그리고 성

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요인 분석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으로 각 척도별로 요인의 수를 정하여 Varimax 회전법으로 탐색적으로 요인을 추출하였는데, 요인의 수를 정한 이유는 연구자가 척도를 개발하거나 수정했을 때 각 척도별로 하위 구성 개념을 고려하여 문항들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탐색적 요인 분석은 구조방정식 모델링에서 각각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으로 구성되는가를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모형 검증은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분석 방법을 사용해 실시하였다. 다섯 개의 구성 변인(이론적 구성개념)간의 경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섯 개의 구성변인은 측정 변

표 1. 정의 신념 요인분석 결과

문 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17. 서로를 아껴줄 때 드는 것이다	.77	-.12	.24	.14
16. 친밀하고 편안하게 대할 때 드는 것이다	.75	-.11	.40	-.12
21. 서로 신뢰할 때 드는 것이다	.71	-.20	.33	-.42
14. 서로를 좋아하거나 사랑할 때 드는 것이다	.69	-.29	.37	.11
25. 서로를 소중하게 여길 때 드는 것이다	.68	-.43	.12	.16
15. 서로에게 솔직하게 대할 때 드는 것이다	.68	-.17	.12	.12
13. 따뜻하게 대할 때 드는 것이다	.66	-.29	.38	.22
7. 서로 맘이 맞는 경우 드는 것이다	.66	-.24	.10	.16
19. 도움을 줄 때 드는 것이다	.61	-.24	.25	-.11
12. 서로를 이해하고 잘 알게 되었을 때 드는 것이다	.56	-.19	.29	-.15
11.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때 드는 것이다	.53	-.18	.33	.16
22. 상대가 이기적일 때에도 들 수 있다	.17	.80	-.20	.23
26. 상대가 함부로 말할 때에도 들 수 있다	.19	.79	.11	.33
3. 나에게 피해를 줄 때에도 들 수 있다	-.12	.75	.27	-.24
18. 상대가 잘난 척을 할 때에도 들 수 있다	.27	.73	-.12	.23
6. 상대가 차갑게 대할 때에도 들 수 있다	.33	.72	.12	.31
20. 사사건건 참견할 때에도 들 수 있다	.32	.71	.18	.10
24. 성가시게 굴 때에도 들 수 있다	.22	.69	.22	.18
23. 서로 다툰 때에도 들 수 있다	.22	.65	.22	.14
8. 상대와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될 때 들었다고 생각한다	.23	.22	.64	-.13
9. 알맴게 행동하지만 나에 대한 그 사람의 본마음은 알 때 들었다고 생각한다	.10	.24	.62	.22
4. 함께 할 땐 몰랐는데 없으면 허전하고 보고 싶을 때 들었다고 생각한다	.22	.10	.54	.23
1. 오랫동안 함께 생활 한 경우 드는 것이다	.29	-.20	-.10	.82
2.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을 경우 드는 것이다	.26	.28	.22	.80
5. 오랫동안 동고동락한 경우 드는 것이다	.23	-.11	1.79	.68
Eigen value	5.58	4.59	1.99	1.33
설명변량(%)	21.48	17.65	7.66	5.13
Cronbach α	.88	.88	.55	.69

인(관찰 변인)들의 요인분석을 통해 산출된 변인들로 구성된 잠재변인이고, 감정요소와 다른 두 개의 구성변인(신념, 욕구)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각 구성변인은 세 개 내지 네 개의 측정변인들로 구성되었다.

결 과

마음의 범주로서의 각 구성개념의 대한 요인분석

정 신념 요인분석

정은 '이럴 때 드는 것'이고, '이런 것'이라는 진술문으로 구성된 문화적 신념으로서의 정의 표상에 대한 요인분석은 26 문항을 연구자가 설정한 구성개념의 수와 eigen 값, scree plot, 부하량 및 문항들간의 상관을 고려하여 요인의 수를 4개로 고정시켜 분석하였다. 추출된 첫 번째 요인은 21.48%의 설명변량을 가진 것으로, 11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고 '아껴주고 편안하게 대할 때 드는 것'에 관련된 문항들로 적재되어 요인명을 '아껴주기' 신념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나를 괴롭히거나 서로 다들 때에도 드는 것'과 관련된 8개의 문항들이 적재되어, 약 18%의

설명변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문항들의 성격을 반영하여 '상대본심 이해'로 명명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번째 요인과 네 번째 요인은 각 각 3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비교적 설명변량도 적게 나타났으며, 특히 세 번째 요인은 신뢰도 계수도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세 번째 요인과 네 번째 요인을 각 각 '관계' 신념과 '동거역사성'으로 명명하였다.

정 욕구 요인 분석

정 욕구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모두 두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제 1 요인의 경우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얻기 위한 욕구와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이를 '정서적 욕구'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약 10%의 설명변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모두 6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고 가까운 사람이나 친구가 자신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도구 혹은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문항들로 적재되어 '도구적 욕구'라 명명하였다.

표 2. 정 욕구 요인분석

문 항	요인 1	요인 2
3. 나는 가까운 사람들과 있을 때 가족같은 친밀감을 느낀다	.81	.15
13. 나는 가까운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다	.80	.33
14. 나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마음을 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눈다	.73	.21
12. 나는 친한 친구에게는 가족처럼 가깝게 대한다	.70	.22
11. 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을 많이 주는 편이다	.66	.25
9. 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동질감을 느낀다	.66	.29
1. 나는 가까운 사람이나 잘 아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즐겁다	.65	.06
15. 나는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60	.29
2. 나는 혼자 있는 것 보다 가까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	.57	.17
5. 나는 가까운 친구의 부탁이면 나를 희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들어주는 편이다	.24	.67
10. 나는 친구의 일이 내 일보다 먼저라고 생각한다	.11	.60
6. 나는 친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 일처럼 함께 걱정한다	.39	.59
8. 나는 나의 의견보다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다	.15	.59
4. 나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을 싫어한다	.33	.57
7. 내 주변에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 줄 친구가 많다	.27	.52
Eigen value	5.6	1.5
설명변량(%)	37.33	10.03
Cronbach α	.88	.68

표 3. 정 감정 요인분석

문 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9. 사랑스럽다	.76	.13	.13
18. 포근하다	.63	-.23	.32
17. 애뜻하다	.59	.29	.25
10. 그립다	.53	.25	.33
1. 고마움	.53	.22	.24
19. 즐겁다	.50	-.18	.40
12. 따뜻하다	.47	.17	.46
16. 동정심을 느낀다	.41	.38	-.14
20. 부담스럽다	-.34	.75	-.17
7. 불편하다	-.30	.73	-.11
14. 차갑게 느껴진다	-.37	.71	-.21
11. 밍다	-.24	.70	.12
8. 싫어도 어쩔 수 없다	-.27	.68	.24
5. 기분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다	-.40	.51	.37
13. 친밀감을 느낀다	.14	.21	.72
3. 좋다	.31	.15	.61
4. 편안하다	.25	-.18	.56
15. 동질감을 느낀다	.13	.20	.53
2. 기분 좋다	.47	.16	.50
6. 든든하다	.36	-.11	.39
Eigen value	5.19	2.83	1.29
설명변량(%)	25.96	14.16	6.44
Cronbach α	.77	.78	.72

정 감정 요인분석

정들었을 때 드는 감정은 모두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는 바, 첫 번째 요인은 포근하고 따뜻하며, 그리운 감정 등 8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었고 26%의 설명변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문항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첫 번째 요인을 ‘따뜻함’이라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에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불편함과 차가움 및 미움 등의 문항들이 적재되어 부정적 감정들로 구성되어 요인명을 ‘미운 감정’으로 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첫 번째 요인의 문항들과 유사하지만 친밀감을 중심으로 편안함과 동질감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친밀감’으로 명명하였다.

정 기능 요인분석

정 의도성이 정 표현행위로 이어진다는 이론적 관계는 의도성의 측정이라는 문제에 있어 어려움을 주었지만(물론 응답자에게 질문이나 설문을 해서 의도성을 측정한다

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다), 목적 지향적이고 기능함축적인 지향성의 개념이 이를 포괄하고 있어 의도성의 개념은 기능함축적 의도성의 개념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음속으로 ‘든든함(요인명)’이 가장 중요한 의도로 분석되었는데, 모두 10개의 문항들이 적재되었고, 약 29%의 설명변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거나, 서로 의지할 수 있고, 격려를 받을 수 있으며, 편안함 등을 느낄 수 있다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요인은 부정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방해하거나 자신을 방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보았다(요인명 ‘이성적 판단 방해’). 물론 상대방이나 자신을 방해하기 위해 정을 주거나 정 표현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정 경험이 마음속에 때로는 부정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그러한 행위가 방해가 됨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상정해 볼 때 기능하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요인은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표 4. 정 기능 요인분석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19. 마음이 든든하다	.73	-.39	-.14
20. 내 마음을 이해해준다	.73	-.12	-.14
10.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다	.73	.14	.18
15. 위로, 격려를 받을 수 있다	.68	.37	-.27
16.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다	.65	.23	-.19
18.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64	.11	-.11
7.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다	.57	-.33	.21
6.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	.56	.19	.12
5.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50	.29	.28
3.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시키는 끈이 될 수 있다	.47	.22	.24
13. 가끔 귀찮게 할 수 있다	.32	.84	-.25
12. 가끔 간섭을 받을 수 있다	.41	.82	.12
14. 가끔 듣기 싫은 충고도 할 수 있다	.21	.64	-.20
11. 가끔 말을 함부로 하게 된다	.42	.60	.39
2. 가끔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기 어렵다	.18	.51	-.26
17. 상대에게 신경을 쓰므로 피곤해질 수 있다	.30	.49	-.24
9.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22	.23	.81
8.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다	.20	.32	.79
4. 예의와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다	.27	.26	.74
1. 말과 행동을 거리낌없이 편안하게 할 수 있다	.33	.16	.48
Eigen value	5.70	2.26	1.90
설명변량(%)	28.50	11.32	9.50
Cronbach α	.85	.76	.74

으로 눈치를 볼 필요가 없거나,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고 예의와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다는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허물없음’ 기능으로 명명하였다.

정 행위 요인분석

마지막으로, 정 표현 행위에 대한 요인분석에서는 모두 세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여기에는 직접적인 표현행위와 언어적인 표현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요인에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편안하게 해 주는 것으로 모두 7개의 문항들이 적재되어 약 29%의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상대 배려’ 행위로 명명해 보았다. 두 번째 요인은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거나 편안하게 해 주는 것보다 좀더 직접적이고 보이는 행위에 관련된 문항들로 ‘아낌 행동’으로 명명해 보았다. 세 번째 요인(‘격의없는 행위’)은 5개의 문항들이 적재되었는데, 앞의 두 요인과는 달리 겉으로 보기에 명확하게 미운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상대방의

본마음과 관계를 상징해 볼 때 결코 미운 행동이 아님을 암시하는 행위들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 마음의 일반인 심리학적 모형 설정을 시도하기 위해 각 각의 구성 차원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요인들의 평균 및 표준 편차 및 상관들을 표 6과 7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남, 여 간 차이는 아낌 행동(남자 평균=3.55, 여자평균=3.70, $t=-2.03, p<.05$)에서 여성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인과 대학생 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을 제시하였다.

정 마음모형 분석

설정된 정 마음 모형에 따라 마음의 범주로서의 신념, 욕구 및 기능간의 관계와 기능이 정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정의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신념과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모형검증에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에 대한

표 5. 정 행위 요인분석

문 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6. 편안하게 대해준다	.77	.20	-.48
8. 힘들 때 위로해 준다	.72	.10	-.43
7. 배려해 준다	.69	.23	-.33
1. 따뜻하게 대한다	.59	.29	-.32
16. 친근하게 말한다	.58	.14	.14
13. 잘 이해해 준다	.57	.34	-.15
10. 도움을 준다	.43	.38	.12
11. 애정을 표현한다	.26	.77	.48
2. 기념일이나 평상시에 선물을 준다	.02	.71	.36
19. 스킨십(신체 접촉)을 한다	.19	.68	.35
3. 편지나 전화연락을 자주 한다	.22	.64	.31
9. 미안할 정도로 잘 해준다	.29	.55	-.22
12.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준다	.44	.55	.19
18. 아껴준다	.48	.54	.22
20. 나를 존중해준다	.40	.49	-.15
15. 가끔 알뜰게 행동한다	-.16	-.12	.80
5. 내가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할 때도 있다	-.19	.33	.78
4. 어떨 땐 통명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23	.21	.73
14. 말투와 행동이 거칠다	.33	-.23	.68
17. 가끔 냉정하게 대하기도 한다	-.16	.19	.68
Eigen value	5.73	2.89	1.44
설명변량(%)	28.66	14.43	7.19
Cronbach α	.79	.83	.79

표 6. 각 요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요 인	평균	표준편차
정 신념	1. 아껴주기	3.91
	2. 상대본심이해	2.46
	3. 관계	3.75
	4. 역사성	4.12
정 욕구	1. 정서적	4.04
	2. 도구적	3.51
정 감정	1. 따뜻함	3.63
	2. 미움	2.32
	3. 친밀감	3.94
정 기능	1. 든든함	4.04
	2. 이성적 판단방해	3.37
	3. 허물없음	3.32
정 행위	1. 상대배려	4.00
	2. 아낌행동	3.63
	3. 격의없는 행동	2.78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요인들을 구성하는 측정된 변인들을 각 측정 모델의 측정 변인화하였다.

표 7의 상관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ML 방식의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준치(예를 들면, χ^2 , GFI, RMSEA, RMR, CFI, NFI, NNFI) 를 준거로 삼았다(Bentler, 1990; Bentler & Bonett, 1980; Kaplan, 1995; Marsh, Balla, & McDonald, 1988). GFI, CFI, NFI와 NNFI 지수가 .90을 넘을 경우 모형의 적합도가 자료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고, RMSEA의 수치가 .05보다 작을 경우 부합도에 근접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08보다 클 경우 모집단 추정에서의 오차를 반영하는 것이다.

원모형

성인과 대학생들 응답자들을 포함하는 전체 모형(그

표 7.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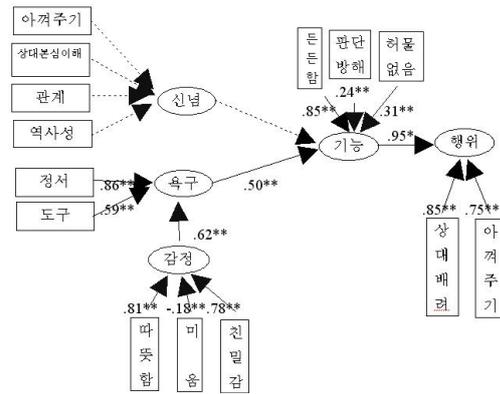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000														
2	.023	1.000													
3	.377**	.266**	1.000												
4	.120*	-.018	.150**	1.000											
5	.436**	.032	.298**	.230**	1.000										
6	.262**	.147**	.190**	.223**	.513**	1.000									
7	.568**	-.005	.285**	.133*	.374**	.238**	1.000								
8	-.139*	.339**	.073	.001	-.114*	.039	-.143*	1.000							
9	.523**	.081	.345**	.115*	.434**	.253**	.647**	-.175**	1.000						
10	.481**	.097	.315**	.207**	.641**	.453**	.542**	-.126*	.544**	1.000					
11	.173**	.333**	.263**	.179**	.257**	.255**	.129*	.235**	.262**	.368**	1.000				
12	.150**	.214**	.218**	.095	.196**	.191**	.165**	.007	.225**	.374**	.270**	1.000			
13	.494**	.064	.325**	.162**	.571**	.397**	.609**	-.155**	.585**	.664**	.211**	.172**	1.000		
14	.468**	.014	.233**	.128*	.495**	.261**	.634**	-.150**	.416**	.613**	.144*	.107	.633**	1.000	
15	-.020	.522**	.262**	.044	.055	.112*	-.104	.483**	.103	.060	.507**	.235**	-.028	-.121*	1.000

* $p < .05$, ** $p < .01$

주); 1 : 아껴주기, 2 : 상대본심이해, 3 : 관계, 4 : 동거역사성, 5 : 정서적 우리 욕구, 6 : 도구적 우리 욕구, 7 : 따뜻함, 8 : 미움, 9 : 친밀감, 10 : 든든함, 11 : 이성적 판단 방해, 12 : 허물없음, 13 : 상대배려, 14 : 아낌행동, 15 : 격의없는 행위

림 2)을 분석한 결과, 모형의 부합도는 χ^2 값이 230.75 ($p=.001$)($df=60$)으로, RMSEA는 .09로 나타났고, GFI는 .89, RMR은 .06, NFI는 .86, NNFI는 .85, 그리고 CFI는 .89였다. 각 구성개념과 측정변인간의 관계에서는 신념의 구성변인과 측정변인간의 관계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욕구 차원에서는 정서적 욕구가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기능성 의도에서는 든든함이 다른 두 변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감정의 차원에서는 모든 측정변인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이 복합적으로 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위의 차원에서는 두 개의 측정변인 즉 상대배려와 아껴주기 행위만이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각 구성개념간의 관계에서는 감정과 신념과의 관계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gamma=1.012, t=.67$), 신념과 기능간의 관계($\beta=.56, t=.68$) 또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 $p < .05$, ** $p < .01$

그림 2. 정 마음 원모형

다. 감정은 욕구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념과 욕구 및 기능 그리고 행위와의 관계에서는 욕

표 8. 모형의 부합치 계수

모형	부합도	χ^2	df	p	RMSEA	RMR	GFI	NFI	NNFI	CFI
원모형		230.75	60	0.0	.09	.07	.89	.86	.85	.89
수정 모형		91.49	53	0.0	.05	.05	.96	.94	.96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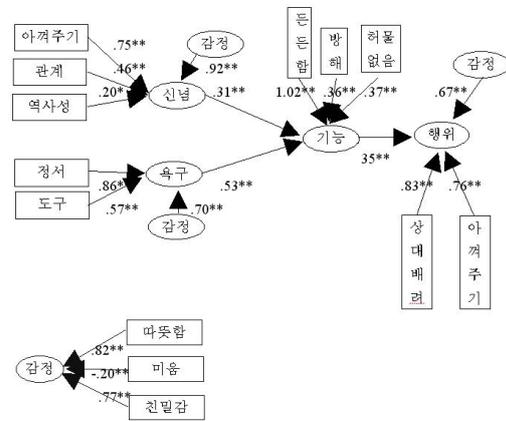
구만이 기능과 유의미한 관계에 있고, 기능은 행위와 비교적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정 마음의 범주는 욕구-감정-기능간의 관계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정모형

원모형을 수정지수에 따라 수정하면,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수들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인 부합도에서 원모형보다 크게 향상되었고 정 마음의 범주 속에 있는 구성개념들과의 관계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모형에서는 감정과 신념, 욕구의 관계만을 알아보려 했으나 모형 검증 결과 행위와의 관계 설정 가능성에 대한 수정지수에 따라 감정과 행위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모형의 χ^2 값이 91.49($p=.001$)($df=53$)으로, RMSEA는 .05로 나타났고, GFI는 .96, RMR은 .05, NFI는 .94, NNFI는 .96, 그리고 CFI는 .98로 나타나 효과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신념의 차원에서는 ‘아껴주기’의 Lambda Y 값이 .75 ($t=3.34$)로 나타나 다른 두 요인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관계 Lambda Y=.46, $t=3.32$; 동거역사성 Lambda Y=.20, $t=2.46$). 욕구 차원에서는 정서적 욕구(Lambda Y=.86, $t=9.83$)가 도구적 욕구(Lambda Y=.57, $t=9.06$)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능의 차원에서는 든든함이 다른 두 요인에 비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Lambda Y=1.02, $t=9.60$; 이성적 판단 방해 Lambda Y=.36, $t=6.75$; 허물없음 Lambda Y=.37, $t=6.79$). 표현 행위차원에서는 상대배려(Lambda Y=.83, $t=4.92$)와 아끼 행동(Lambda Y=.76, $t=5.12$) 모두가 비교적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의 차원은 ‘따뜻함(Lambda X=.82, $t=16.40$)’과 ‘친밀감(Lambda X=.77, $t=15.52$)’이 모두 높은 값을 보였고, 미움은 비교적 낮은 값(Lambda X=-.20, $t=-3.39$)을 보였지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의 범주로서 각 구성개념간의 관계를 보면, 정 신념이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beta=.31(t=2.93)$ 이고, 욕구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beta=.53(t=5.12)$ 로 나타나 욕구-기능의 관계가 더 강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기능과 행위의 관계는 $\beta=.35(t=4.33)$ 로 나타났다. 감정이 각 각의 구성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모두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신념에 미치는 영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gamma=.92$,



* $p<.05$, ** $p<.01$

그림 3. 정 마음 수정 모형

$t=3.21$). 욕구($\gamma=.70$, $t=7.10$) 및 행위($\gamma=.67$, $t=3.95$)에는 비슷한 관계를 보이고 있고, 기능에는 간접적으로 $\gamma=.66(t=.7.50)$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정 마음은 따뜻하고 친밀하지만 가끔은 멍게 여겨지는 감정과 복잡한 아껴주고, 상대방과의 관계와 역사를 생각하게 하는 신념과 강력한 추동으로서의 욕구가 든든함과 허물없음의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배려하고 아껴주는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껴주고 상대를 배려하는 행위를 통해 관계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행위자의 본마음과 함께 우리라는 인식과 함께 있으려는(혹은 함께 있고 싶은) 욕구가 든든함이라는 심리적 기능을 배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다. 또한 감정은 신념과 욕구 및 행위에 복합적으로 배여있는 마음의 또다른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인지중심의 일반인 심리학이 감정의 역할이나 영향에 대해 소홀히 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시사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정의 기능 중 이성적 판단 방해의 측정 변인이 다른 두 변인에 비해 부정적인 기능이지만 이를 알면서도 실제로 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감정의 구성 변인 중 상대방에 대한 미움도 정 감정을 느낄 때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요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측정변인들간의 역의 관계로 부적인 값을 보이고 있지만 ‘미운 정 고운 정’이 함께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논의 및 결론

마음의 심리학적 모형은 일반인들의 일상생활과 활동 속에서 겉으로 드러난 언행을 통해 마음(mind)이 어떤 것이라든가 추론의 과정을 일반인들의 이해와 설명방식에 따라 신념과 욕구 및 의도의 범주로 규정하고 있다(Kashima, McKintyre, & Clifford, 199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국 문화에서 일상의 활동과 생활 속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문화적 정서로서의 정 상호작용에 따른 마음을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했다. 이러한 모형의 설정은 정 마음의 범주를 문화적 신념과 욕구 및 기능으로 보았고, 이러한 마음이 정 표현행위에 미치는 영향 혹은 정 표현행위와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정의 문화적 신념은 마음경험의 구체적 내용물들로서 직접적인 실물성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이 집단적으로 공유될 때 나타난다. 또한 정의 심리적 현상은 친밀한 관계인 우리라는 개념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한국인들의 정 경험의 독특성을 추출해 낼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최상진, 유승엽, 1995; 최상진, 2000; Choi, 1998; Choi & Choi, 2001)을 토대로 욕구를 가정하였다. 의도는 일반인 심리학 모형에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한 욕구가 발동될 때 의도라는 상태로 수렴되고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행동이 심리적 기능을 함축하고 있고 동기, 욕구, 의도 및 기능을 포함하는 지향성 개념과의 연계를 통해 기능 함축적인 의도로 규정하였다.

마음의 범주로서의 각 구성 개념간의 관계는 성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모형에서는 신념의 차원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신념과 기능간의 관계 또한 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모형에서는 연구자가 감정과 신념, 욕구간의 관계만을 설정했는데, 분석 결과 욕구-기능-행위간의 관계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 마음의 범주는 욕구-기능-감정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정 모형에서는 감정과 욕구, 신념 및 행위와의 관계를 설정하였는데, 분석 결과 정 마음의 범주에 신념-욕구-기능이 모두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감정과 신념, 욕구의 관계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감정이 마음의 범주속에 그리고 행위에 수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념의 차원에서 '상대 중심 이해'라는 측정변인과 행위의 차원 중 '격의없는 행동'의 측정변인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조방정식 모델링이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와 공변량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어서 각 요인의 평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두 변인의 평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에서도 역의 상관 혹은 매우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에서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최상진 등, 2000; Choi, Kim, & Kim, 1999). 또한, 일반적으로 내생 변인(endogenous variable)의 변량이 10%보다 적을 경우에는 경로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정은 관계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아껴줄 때 드는 것이라는 문화적 신념이며, 정은 상대를 배려하거나 아껴주는 행위를 통해 활성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서로 싸우거나 밋게 행동할 때에도 정의 들고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만 정은 핵심적인 요소는 아껴주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은 우리성 관계 즉 가족이나 친구 등의 관계에서 활성화되는 감정인데, 가까운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힘든 일이나 기쁜 일을 함께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관계 설정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성은 인지와 정서를 포함한 욕구의 형태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 욕구의 척도를 개발(최상진 등, 1999; Yu et. al., 2001)하여 정서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욕구 차원과 도구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도구적 욕구 차원으로 구성하였는데, 분석 결과 기능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의 원인으로서는 기능은 심리적인 든든함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고, 정으로 인한 합리적 의사결정 및 판단에 대한 방해와 체면이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격식없는 허물없음의 요소로 구성되었는 바, 이는 정의 궁극적인 기능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최상진, 2000; 최상진 등, 1999). 따라서 정의 심리적 기능은 행위의 결과와 원인 모두에 배태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의도된 형태로서의 지향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최상진, 1999).

정 표현 행위 양식은 모두 세 개의 구성 개념으로 이루어

어저 있으나, 격의없는 행동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대를 배려하거나 아껴주는 행위가 곧 정을 표현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마음의 일반인 심리학 모형의 검증과 더불어 감정의 역할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신념과 욕구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아직까지 감정이 신념이나 욕구 등과 어떠한 관계 즉 선후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확고한 이론적 설명이나 경험적 자료는 없다(Lillard, 1998; Wellman, 1998 등).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감정은 신념과 욕구 및 행위와 관계가 있고 기능성 의도에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정과 행위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되어 이를 분석한 결과 신념과 욕구보다는 낮지만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은 따뜻함과 친밀감 및 미움으로 구성되었는데, 미움의 감정은 다른 두 요소와 역의 관계를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가지고 있어 주요 요소로 활성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음의 범주로서의 세 가지 이론적 구성개념 즉 정의 신념, 욕구 및 기능의 구조적 관계는 신념과 기능의 관계가 욕구와 기능과의 관계보다 낮았고, 신념과 욕구로 이어진 기능과 행위의 관계 또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의 범주 안에 있는 각 구성개념과 감정의 관계는 신념이 가장 높았고, 욕구 및 행위와의 관계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각 구성 개념에 있어서는 신념의 차원에서 상대본심 이해에 관련된 신념과 행위의 차원에서 격의없는 행동의 측정변인이 무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의 마음은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의 관계를 생각하며 함께 지낸 시간에 대한 문화적 신념과 함께 있으려는 욕구가 심리적으로 든든함을 느끼고자 하는 의도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겉으로 드러난 정 표현 행위는 정의 이럴 것이다라는 생각과 그런 것을 원하는 욕구와 든든해지고자 하는 기능이 함축되어 표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따뜻함과 친밀감 및 미움의 혼합된 감정이 신념 및 욕구에 복합적으로 개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정 감정은 또한 정 표현 행위에 수반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마음의 일반인 심리학 모형에서 제기했던 감정을 마음 범주의 한 구성개념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문화적인 마음경험에서 감정이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인들의 대인

상호작용에서 행위자와 행위 상대자의 마음을 중요시하고, 심장공감을 통해 마음을 이해하고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인들은 정 관계속에서 정 경험의 핵심적인 요소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보다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 행위보다는 마음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최상진 등, 2000, 2001). 대학생과 성인을 통합한 모형에서 정의 감정은 문화적 신념과 높은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감정이 배태된 인지가 마음의 한 범주로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행위인 정 행위는 정 마음으로 경험되는 것이고, 정 마음은 감정이 복합적으로 배어있는 문화적 신념과 욕구 및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마음의 모형으로서 문화적 신념과 욕구 및 기능의 관계를 양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실제의 일상적인 활동과 경험에 따른 문화적 신념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식적인 것이고 인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정세한 모형으로서 정립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또한 감정의 역할을 연구자에 따라 혹은 이론적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성을 설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감정의 영향력이 신념과 욕구 및 행위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더불어 구성개념으로서의 문화적 신념의 구성요소 중 관계와 역사성의 측정변인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고 설명변량이 적기 때문에 타당한 구성개념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 감정이 행위와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인과는 달리 감정을 행동에 수반되는 혹은 상호 관련되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대학생들에게 적합한 모형의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마음의 구성 요소 중 의도를 기능함축적 의도로 측정하였고,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구성개념으로 보았지만 지향성은 신념, 욕구, 기능, 의지와 감정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철학 뿐만 아니라 심리학 분야에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와 의도의 관계는 태도에서 행위 의도와 행위의 문제만큼 그 관계성이 맥락에 따라 그리고 문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화권에서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는 방식으로 시나

리오를 작성해 그 의미를 파악한다든가 혹은 실험적으로 행위 표출 가능성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의철 (2000). 토착심리학과 문화심리학의 과학적 토대.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6(3), 1-24.
- 위르겐 하버마스, 이강수 역 (1994). 커뮤니케이션 행위이론 I. 서울 : 나남.
- 이장주 (1998). 정 상호작용 행위 유형의 문화심리적 기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상진 (1999). 제 1장 서론. 최상진, 윤호균, 한덕웅, 조궁호, 이수원 (공저), 동양심리학 : 서구심리학에 대한 대안 모색(pp.9-30). 서울 : 지식산업사.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2000). 문화 문화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 지난 20여 년간의 심리학 연구를 통해서 얻은 문화심리학적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6(3), 25-40.
-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2000). 정(미운정 고운정)의 심리적 구조, 행위 및 기능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4(1), 203-222.
- 최상진, 유승엽 (1995). 정의 심리적 구조에 대한 경험적 분석. 국제여성연구소 연구논총, 5(1), 중앙대학교, 107-132.
- 최상진, 이장주 (1999). 정의 심리적 구조와 사회-문화적 기능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3(1), 219-233.
- 최상진, 최인재, 김기범 (1999). 정, 체면민감성이 스트레스와 문제대응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pp. 28-44.
- 최상진, 한규석 (1998). 심리학에서의 객관성, 보편성 및 사회성의 오류 : 문화심리학의 도전.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17(1), 73-96.
- 최상진, 한규석 (2000). 문화심리학적 연구방법론.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4(2), 123-144.
- 최상진, 한규석, 김기범 (2000). 문화, 마음, 인지 구성에서의 삼위일체적 역동.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동계학술발표회, pp.13-19.
- 최상진, 한규석, 김기범 (2001). 문화사회심리학에서의 마음.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pp.241-249.
- 한덕웅 (1994). 퇴계심리학 : 성격 및 사회심리학적 접근. 서울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한덕웅 (1999). 한국 유학의 심리학. 최상진, 윤호균, 한덕웅, 조궁호, 이수원(공저), 동양심리학 : 서구심리학에 대한 대안 모색(pp.163-285). 서울 : 지식산업사.
- 한덕웅 (2000). 대인관계에서 4단 7정 정서의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4(2), 145-166.
- Bartsch, K., & Wellman, H. M. (1995). *Children talk about the mind*.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3), 588-606.
- Bruner, J. (1990). *Acts of meaning*.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Choi, S. C. (1998). The third-person-psychology and the first-person psychology : Two perspectives on human relations.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25, 239-264.
- Choi, S. C., & Choi, S. H. (2001). Cheong : The socio-emotional grammar of Koreans.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Tensions*, 30(1), 69-80.
- Choi, S. C., Kim, J-Y, & Kim, K. (1999). Sweet Cheong and hateful Cheong. *Paper presented at the 3rd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ugust 4-8, Taipei, Taiwan*.
- Cole, M. (1996). *Cultural psychology : A once and future discipline*.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D'Andrade, R. (1987). A folk model of the mind. In D. Holland & N. Quinn(Eds.), *Cultural models in language and thought*(pp.112-148).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 Addison-Wesley.

- Goldman, A. I. (1993). The psychology of folk psychology.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6, 15-28.
- Greenwood, J. D. (1991). Introduction : Folk psychology and scientific psychology. In J. D. Greenwood (Ed.), *The future of folk psychology : Intentionality and cognitive science*(pp.1-21). Cambridge,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eenwood, J. D. (1999). From Völkerpsychologie to cultural psychology : The once and future discipline? *Philosophical Psychology*, 12(4), 503-514.
- Haselager, W. F. G. (1997). *Cognitive science and folk psychology : The right frame of mind*. London : Sage.
- Kaplan, D.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ousand Oaks : Sage.
- Kashima, Y., McKintyre, A., & Clifford, P. (1998). The category of the mind : Folk psychology of belief, desire, and intention.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 289-313.
- Lillard, A. (1998). Ethnopsychologies : Cultural variations in theories of mind. *Psychological Bulletin*, 123(1), 3-32.
- Malle, B., & Knobe, J. (1997). The folk concept of intentional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3, 101-121.
- Marsh, H. W., Balla, J. R., & McDonald, R. P. (1988). Goodness-of-fit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The effect of sample size. *Psychological Bulletin*, 103(3), 391-410.
- Moscovici, S. (1984). The phenomenon of social representations. In R. M., Farr, & S. Moscovici(Eds.), *Social representations*(pp.3-69). Cambridge,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apiro, L. A. (1997). The nature of nature : Rethinking of naturalistic theories of intentionality. *Philosophical Psychology*, 10(3), 309-322.
- Shore, B. (1996). *Culture in mind : Cognition, culture, and the problem of meaning*.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Shweder, R. A. (1990). Cultural psychology : What is it? In J. W. Stigler, R. A. Shweder, & G. Herdt(Eds.), *Cultural psychology : Essays on comparative human development*(pp.1-43).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weder, R. A. (1991). *Thinking through cultures*.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Wellman, H. M. (1990). *The child's theory of mind*. Cambridge, MA : The MIT Press.
- Wertsch, J. V., Rio, P. D., & Alvarez, A. (1995). *Socio-cultural studies of mi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u, S. Y., Kim, K., & Lee, K. U. (2001). Folk model of the Maum(mind) : Based on Cheong interaction. *Paper presented at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Melbourne, July 10-13, Australia*.

A Test of Folk Psychological Model for 'Jeong'(Interpersonal Affection) 'Maum'(Mind)

Kibum Kim

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test for *Jeong* (interpersonal affection) *Maum* (mind) through SEM. In view of folk psychology, everyday understanding of human action requires an understanding of other minds (Kashima, McKintyre, & Clifford, 1998). Folk psychological understanding, prediction, and explanation of human action may be based on the categorization of observed behaviors and events into the category of folk psychological mind. I hypothesized a folk model of *Jeong Maum* and tested it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The folk model of *Jeong Maum* was consisted of belief, desire, and intention as a category of *Maum*. I also tes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tegory of *Jeong Maum* and behavior, and the influence of emotion on the category of *Maum*.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influence of desire was stronger than belief on intention as a category of *Jeong Maum*. However, *Jeong* emotion influenced much on belief. *Jeong* emotion also influenced on behavior. Thus, the emotion which would feel in *Jeong-deun* relationship is likely to relate to belief, desire and behavior. This results implied that emotion could have constitutive function in the category of *Maum*.

Keywords: *Jeong*; *Maum*; Cultural psychology; Belief; Desire

1차원고 접수일 : 2008년 9월 22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9년 2월 19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2월 23일